

보도시점 2025. 4. 29.(화) 11:00 배포 2025. 4. 29.(화) 09:00
4. 30.(수) 조간

반려견,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0원'

- 농식품부, 자진신고 기간 2달간(5.1~6.30) 운영 후 집중단속 추진
-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 변경 신고도 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차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 자진신고기간 : (1차) 5.1~6.30, (2차) 9.1~10.30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만 신고 가능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담당자	서기관 김해울 (044-201-2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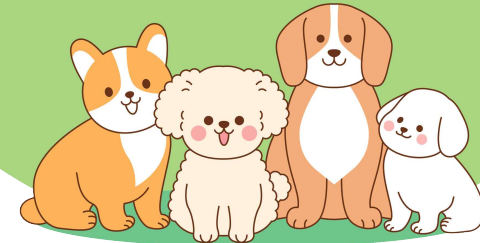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1차 자진신고 5.1~6.30.
집중단속 7.1~7.31.

2차 자진신고 9.1~10.31.
집중단속 11.1~11.30.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정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 1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 2 유기동물 발생 감소
- 3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

동물등록 방법

- 내정형 방식** ☒ 안전합니다
- 1 동물병원 방문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
 - 2 내정형 시술(주사)
 - 3 등록 완료
- 외정형 방식**
- 1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
 - 2 외정형 장치 구입
 - 3 등록 완료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대상

- 10월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30일 이내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정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2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3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